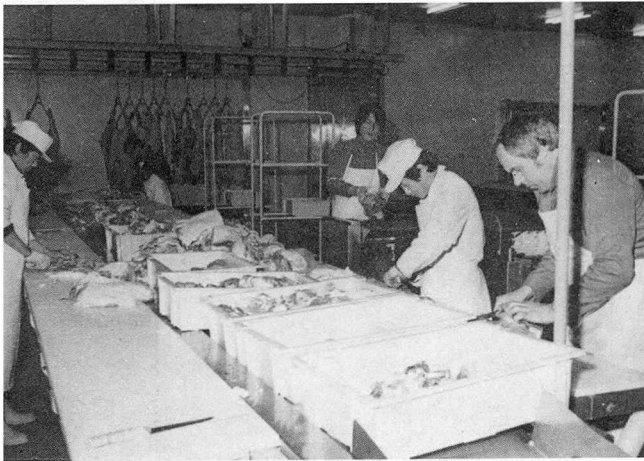


쇠고기 수입 자유화에 따른 일본의 양돈



이 상 훈역
(본회 음성지부장)

이 테마는 이미 여러곳에서 토론되고 잡지와 신문에 보도되어 재탕 삼탕의 감이 없지도 않으나, 일본의 양돈가가 살아남기 위한 문제 제기로 되었으면 생각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답부터 먼저 말하면, 먼저 자유화 직후에는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것은 기정 사실이다. 그 이유로서 두가지를 들 수 있다고 본다. 먼저 쇠고기 그 자체가 값이 싸고 소비자는 쇠고기에 굶주린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쇠고기 값이 저하되므로 인하여 돈가도 떨어지고 국산 돈육이 비싸서 수입돈육에 먹혀 버리게 되리라고 본다. 이 두가지 관문을 무사히 통과한 양돈가만이 살아남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이에 살아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무사하다고 하는 보증을 없다. 쇠고기의 관세가 해마다 내려갈 것이므로 이에 수반하여 돈가도 하락하게 된다는 것은 살아남은 사람중에서 또 다시 한정된 사람만이 다시 살아 남을 수 있다고 하는 눈앞이 캄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그에 대응할 계획성을 가진 경영을 행하고 소비계몽에 주력하게 되면 어느 정도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리라고 생각된다.

쇠고기의 수입자유화가 시작되면 쇠고기가 가격이 축산 모두에의 부침(浮沈)을 장악하게 될 수 없으므로 현재 관민일체로 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갖고 대처하고 있으므로 그 계획을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생각할 일은 지금 미국과 경쟁하여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지금 미국의 육우와 돼지가격은 생체로 소가 200엔/kg, 돼지가 100엔/kg, 지육환산으로 소가 350엔/kg · 돼지가 170엔/kg 정도이다. 덧붙여서 일본에서의 가격은 지육으로 홀스타인 거세지육이 1,200엔/kg, 돼지가 400엔/kg 정도의 추이다. 미국에 비해 소가

일본은 쇠고기 수입을 자유화 함으로써 쇠고기값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돼지고기 값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산돼지고기값이 수입돼지고기보다 비싸서 수입돈육에 먹혀버릴 것으로 전망된다.

6배, 돼지가 2.5배의 지육가격이다. 이것으로는 맨손으로 기관총과 싸우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그러므로 이곳에서는 육우농가의 일은 체쳐두고 왜 돈가에 이와같은 차이가 생기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는 생산비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단지 가격의 비교는 위험한 것이나 미화(달러)를 엔화로 환산하여 생각하면 미국의 생산비는 지육환산으로 160엔/kg전후, 이중에서의 사료비는 55%, 인건비가 12%, 상각비가 15%로 되어있는 것에 반해 일본의 평균적인 양돈경영에서는 사료비가 50%, 인건비가 11%, 상각비가 18%, 그리고 미국에 없는 공해대책관계 비용이 7%가 있다.

생산비에 있어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차이는 위생비에 관계되는 비중이 미국쪽이 높고 세금도 많다. 이에 더하여 생산비가 싸게 되어 있는 이유의 하나는 일본이나 구라파와 같이 모든 성적의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일본이나 구라파에서는 연간 모든 1두당 25두의 출하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미국은 20두인 것이다. 이것은 관리에 대한 눈에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비용, 위험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 그들은 이익률, 수익률을 최고로 갖고 가자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매상액을 신장시켜 그중에서 얻어지는 얼마간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현상이 아닌가 한다. 당연히 경영자의 노력으로 매상액을 올리고 이익을 최대한으로 얻으면 좋으나, 두마리의 토끼를 얻기는 아주 힘든 일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끝으로 미국의 양돈농가는 전국양돈생산자협회를 중심으로 적극입에 의하여 얻어진 자금을 소비계몽에 십분 이용하고 있다. 이 자금의 일부가 수출용의 연구비로서 정보수집, 식생활문화연구 등 여러가지 면에 사용되고 있다.

미국내에 있어서는 전 올림픽 스케이트선수를 모델로 한 광고를 하고 있고 반공공적 목적의 선전광고에는 탈렌트나 운동선수들이 파격적인 값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 또, TV, 잡지 등 여러가지 정보매체의 조직을 통하여 연령층, 수입 등도 고려한 소비계몽을 하고 있다. 이것들은 모두를 양돈농가만이 행하고 있는것이 아니고 관련된 업계가 열심히 동참하고 있다. 이와같은 단체는 전 미국양돈생산자협회만이 아니고 육우협회, 식조협회, 낙농협회, 등 모든 농업제품의 단체들이 관여하고 있다.

미국의 농가는 자기가 생산한 물건은 자기손으로 판매한다는 방법을 취하고 있고 압력단체로도 되어 상당히 성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측도 입에 손가락을 물고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하여서는 그 능력이 부족하다. 지금은 자기만의 이익에 매이지 말고 업계로서의 이익을 보고, 역으로 수출을 한다는 기백을 갖고 쇠고기 수입자유화에 대처해 나가기를 바란다. **●**